민족의 넋이 숨쉬는 미술작품들

평양미술대학창립 74돐을 맞으며 평양의 옥류전시관에서 미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평양미술대학의 교원, 창작가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에서는 학생들이 창작한 민족의 넋과 향기가 슴배인 작품들이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유화 《민족의 향기》는 회화학부 유화학과 조현정학생이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메주장을 만드는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주었다.

작품은 구도로 볼 때 화면전반에서 메주덩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하고 진지한 묘사와 전반적인 색채적통일이 아주 잘되였을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을 생동하게 묘사한것으로 하여 작품의 양상을 한껏 살렸다.

기자와 만난 평양미술대학 김영성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미술전람회에 참가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창작수준이 매우 높은것을 보니 기쁘다. 주체미술의 대를 이어갈 인재들이 자라고있다는 자긍심으로 가슴이 끓어오른다.》

씨름선수다운 우람한 몸집과 1등의 기쁨넘치는 얼굴, 상으로 받은 큼직한 황소, 열기띤 경기장… 유화 《우승》도 소박하면서도 근면하고 지혜와 용맹, 강한 의지를 지니고 예로부터 씨름을 무척 즐겨해온 우리 민족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다.

민족체육경기의 하나인 씨름을 형상한 그림들은 고구려벽화무덤을 비롯한 력사유적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작품을 창작한 회화학부 유화학과 최영림학생은 《작품에서 황소를 화폭의 전반에 주고 그우에 씨름선수를 그려주어 화면근경의 효과를 살려주면서도 작품의 주제가 뚜렷하게 살아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민족성을 반영한 작품들은 이뿐이 아니였다.

민족정통무도인 태권도의 위력을 보여준 유화 《격파》를 비롯하여 조선화 《김장하는 날에》, 유화 《활쏘기선수》 등은 나날이 꽃펴나는 민족전통을 현실과 결부하여 그린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조형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조각 《부채춤》, 《물동이춤》과 같은 작품들도 심사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한 조선화학부 송련희학생은 《조선화의 풍부하고 세련된 수법으로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반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우수한 전통을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자기의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체조명수 홍은정

공화국의 체육발전사에는 훌륭한 동작으로 세계체조계를 놀래우고 금메달을 쟁취한 체조선수가 있다.

그가 바로 올림픽금메달수상자, 세계체조선수권보유자이며 인민체육인인 홍은정선수이다.

홍은정선수는 2008년에 진행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체조 조마운동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결승경기에서 시작달리기로부터 마지막 내려디디기까지의 모든 동작들을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최고점수를 받고 우승하였다.

언론들은 조선의 홍은정선수가 우승후보로 지목되였던 다른 나라 선수를 이기고 올림픽금메달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홍은정은 뜻을 품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진리를 여실히 증명하였다고 전하였다.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컵체조경기대회, 제27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친 그는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도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세계적인 명수로서의 재능을 한껏 시위하였다.

2014년 10월 중국에서 진행된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는 조선, 로씨야, 일본을 비롯한 70여개의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시작달리기로부터 공중에서의 돌기와 내려디디기까지의 최고급난도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1위를 쟁취하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는 그의 가슴속에는 어머니조국에 또다시 승리의 보고를 드리게 된 크나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홍은정선수는 2008년에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조선의 국화

목란꽃

공화국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 노래 《조국찬가》에는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이라는 구절이 있다. 조국찬가로서의 서정을 한껏 돋구어주는 이 구절에 나오는 목란꽃은 조선의 국화이다.

오랜 옛날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향토종식물인 목란은 함박꽃나무, 목련화(련꽃과 같은것이 나무에 핀다는 뜻)로 불리우며 우리 겨레의 사랑을 받아왔다.

목란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형태학적 및 생태학적특징에는 조선민족의 넋과 기상이 다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흰눈처럼 하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고있는 목란꽃의 빛갈과 아름다운 모양은 백의민족으로 불리워온 우리 민족의 고상하면서도 순결한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나무의 원줄기로부터 가지, 잎사귀, 꽃의 조화로운 결합은 우리 겨레의 슬기와 재능의 반영인듯싶다.

재빛이 도는 흰색의 억센 줄기와 두터우면서도 시원하고 무게있어보이는 잎새, 추위에 대한 견딜성이 강한 생태학적특성은 그 무엇에도 굴할줄 모르는 우리 민족의 도도한 기상과 활력에 넘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목란은 단일품종으로서 꽃의 형태와 크기, 색갈이 포기마다 같으며 어느 지방에 심어도 변화가 없다. 이것은 한강토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기질과 일치하다.

목란은 꽃필 때면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가을이면 탐스럽고 풍만한 열매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목란꽃은 아름다울뿐아니라 향기롭고 열매도 맺고 생활력도 있기때문에 꽃가운데서 왕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목란꽃을 국화로 정해주시였다.

공화국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목란을 많이 심고 가꾸고있다. 최근년간에는 목란의 생물학적특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월한 재배기술을 새로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처럼 향기그윽하고 아름다워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목란꽃을 국화로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다보탑

다보탑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에 있는 돌탑이다. 8세기 중엽 불국사를 세울 때 다보탑과 석가탑도 함께 세웠다.

다보탑은 대웅전을 향하여 오른쪽에 서있다. 밑단,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진 다보탑은 그 높이가 10.4m이다.

밑단은 두단으로 되여있다. 아래밑단의 평면은 정방형이며 그 한변의 길이는 4.34m이고 높이는 2.24m이다. 아래밑단 매 면의 복판에는 10단짜리 계단이 놓였다.

계단앞 량쪽에는 4각돌기둥이 하나씩 서있다. 원래 아래밑단우 네 모서리에는 돌사자가 하나씩 놓여있었다. 두다리를 뻗치고 가슴을 억세게 내민 돌사자는 잘된 조각이였다.

탑몸은 4각란간층과 8각란간층, 8각정자층의 세층이다. 4각란간층은 4각평면의 란간과 그안에 있는 8각평면의 탑몸으로 되였다. 8각란간층의 지붕들은 다보탑의 마감층인 8각정자층의 밑돌로도 되여있다. 8각정자층의 지붕들은 탑전체의 크기와 균형이 맞게 맵시있게 만들었다.

다보탑은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전체와 부분사이의 조화가 잘 째였다. 탑의 매 구성요소들은 어느 한층도 모양새가 같은것이 없고 서로 다른 형태로 되여 구성이 복잡하면서도 정연한 체계속에서 전반적으로 째여있다.

다보탑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조각예술의 발전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금야은행나무

금야은행나무는 함경남도 금야군 동흥리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절골 안불사뒤 언덕진 곳에 있는 한그루의 암나무이다.

금야은행나무는 2 120여년이나 자란 나무이지만 오늘도 푸르싱싱 젊음을 자랑하고있다.

나무의 높이는 41m정도이고 밑둥둘레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15m이며 나무갓너비는 동서방향으로 40m, 북남방향으로 50m로서 그늘면적은 1 800㎡나 된다.

1.5m높이에서 나무의 줄기는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로 올라가면서 많은 가지를 쳤으므로 나무갓은 우산모양을 이루고있다.

금야은행나무는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271호로 지정되여 특별히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사랑하노라 (5)

글 렴예성, 그림 김윤일

실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나는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출장지에서 어제야 돌아왔다더니 벌써 출근했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고민하고있구나.

무엇인가 아프게 마음을 훑어내렸다.

뭔가 후회하고있다면 그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일거야. 그리고 빨리 일어섰으면…

나는 열려진 복도창문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창문너머로 가지가 휘도록 빨간 사과들이 주렁진 과수원이 바라보였다.

문득 따뜻한 추억의 파도가 그윽한 사과향기를 싣고 조용히 밀려왔다.

기숙사생이여서 학급동무들의 도움을 많이 받던 그가 그들을 위해 유일하게 성의를 표시할 기회는 여름방학때뿐이였다.

그가 여름방학때마다 잊지 않고 가져오던 사과 한지함, 그래야 학급인원 30명에게 두알씩 차례지는 사과였지만 동무들은 기쁘게 그 성의를 받군 하였었다.

《정인동지, 사과맛이 참 좋습니다.》

《참 달고 시원하구만요.》

모두가 인사를 하면 그는 기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군 하였다.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인데 우리 고향 사과맛은…》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자식자랑하는 젊은 아버지같이 흥분하여 사과나무에 어떻게 접목을 하고 가지자르기는 어떻게 하며 그래서 키낮은 사과나무에서 얼마만 한 사과를 딸수 있다는데 대해 열심히 설명하군 했다.

그때는 꼭 그가 대학생이 아니라 과수농장의 기술원같았다.

어느해 여름이였다.

나에게 차례진 사과 두알을 맛있게 다 먹어치우고 저녁이 되여 집에 가려고 할 때 뜻밖에 그가 어줍게 웃으며 다가왔다.

나의 앞에서 서성거리던 그는 내가 의문어린 눈길로 빤히 쳐다보자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였다.

《사과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가 빙긋 웃으며 인사를 하자 그는 황급히 말했다.

《아니, 저… 미안해, 유정동무. 많이 가져오지 못해서…》

《정인동지두 참, 량이 문제나요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

그는 망설이며 오래 우물거리다가 주머니에서 빨간 사과 한알을 꺼내들었다.

《다 나누어주고보니 맨밑에 이렇게 큰 사과 한알이 그냥 남아있던데…》

《예? 날더러 나머지 사과를 마저 처리하라구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구 사과를 무척 좋아하는것 같아서…》

《아뇨, 난 배가 더 좋아요.》

힝 걸음을 옮기려던 나는 주눅이 든듯 약간 꺼부정하고 그냥 서있는 그의 모습이 웬 일인지 속에 걸렸다.

난 참 맹꽁이야. 먼곳에서 사과를 들고온 그 마음이 어디라구 이렇게 못되게 논담?

나는 새뭇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집에 가서 먹어두 되지요?》

그때에야 그는 소처럼 씩 웃더니 큰 짐을 벗어놓은 사람처럼 긴숨을 내쉬였다.

《우리 고향 사관 정말 달구 시원하구…》

《음… 또 사과접목강의를 하시려구요?》

나의 투정섞인 말에 그는 또 소리없이 웃었다.

하지만 시간만 있었다면 그는 하루종일이라도 제 고향 사과자랑을 했을것이다.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날의 사과향기…

그 향기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자기의 향기였음을 그는 알아야 한다.

나는 실문을 열었다.

문소리가 나자 피로움에 모대기는 눈빛이 나를 곧바로 주시하였다.

《실장동지, 갔다왔습니다.》

나는 아파하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히고싶지 않아 조용히 말했다.

한동안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후에 그의 목소리가 내 귀전에 들려왔다.

《만족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랭정한것이 이상했다.

《물론이지요. 우리 파마약이 성공했으니까요.》

《성공이라구요?》

그가 나에게로 홱 돌아섰다.

실망스런 그의 눈빛이 웬 일인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동무의 1등꿈의 높이가 고작… 이것이였소? 실망하게 되는구만. 동무의 그 낮은 꿈세계때문에… 우리 인민의 꿈이 나래치지 못하게 될가봐 겁나오!》

《뭐라구요? 동무가 누구의 꿈을 론할… 자격이 있어요?》

잊어버리고싶었던 모든것이 떠올랐다. 격분으로 온몸이 떨렸다.

《듣소. 동무같은 과학자들때문에 가슴아프지만 우리의것이 아직도 남들의것을 압도하지 못하고있소. 동무같은 사람들때문에 아직도 우리 조국이 힘들어하고있단 말이요!》

《뭐라구요?》

《그렇게 연구사업을 할바엔 차라리 포기하시오. 우물안에 앉아서 별 일곱개를 세고 만족해하는 우물안의 개구리!》

《모욕하지 마세요!》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다. 귀전에서 폭탄이 터진것 같았다.

나는 숨이 막혀 허덕이였다. 심장이 터질것 같았다.

가슴속에서 불길이 확 일었다. 나를 사정없이 모욕하는 그 랭랭한 목소리를 태워버리고싶었다.

언제나 조용하고 순박하고 어질고 얼굴을 잘 붉히던 그 사람이 이토록 놀랍게 변했다는것이, 남의 성과를 이처럼 무참히 짓밟는다는것이 나를 아연하게 했고 뭔가 남아있던 마지막 작은 미련마저 산산이 부셔버렸다.

그래도 난 믿고싶어했지. 우리의것을 그지없이 사랑하던 그때의 그 사람으로 돌아오리라고. …

나는 입술을 아프게 옥물었다. 쓰겁게 웃으며 한마디 한마디 씹어뱉었다.

《자기의 얼과 넋이 남에게 저당잡힌 형편에 누굴 비웃는건가요? 그렇게 남의것을 사랑하면 거기서 살것이지 왜 왔어요? 혹시 동문 심장도 남의것으로 교체해넣고 돌아와서 여기가 어딘지 착각하는건 아닌가요? 진짜 여기에 필요없는 사람은… 자기것에 대한 애착도 긍지도 없는 동무같은 허무주의자들뿐이예요!》

그 사람의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쾅! 책상치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아, 유정동무. 돌아왔구만. 이번에 수고했소.》

소장이 반갑게 소리치며 들어왔다.

《무슨 일이요?》 하고 의아하게 묻는 소장의 목소리를 뒤에 남기고 나는 복도로 뛰쳐나왔다. 향방없이 걸어갔다.

누군가의 신발이 앞을 막아섰다. 축하한다는 말소리가 들린다.

9월의 절기와 민속

9월의 절기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다.

백로란 맑은 이슬이 내리고 가을기운이 스며드는 때라는 뜻이다.

추분은 여름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가을이 된다는 뜻으로서 이날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같아지며 그후부터 밤보다 낮이 점점 짧아진다.

백로때에 이르면 산과 들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머루, 다래, 돌배 등 산열매들이 익기 시작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 조를 비롯한 농작물들에 대한 가을과 밀보리씨뿌리기를 하였으며 일부 지방들에서는 목화따기도 하였다.

산간지대에서는 약초캐기와 산열매따기도 하였다.

추분때에 이르면 논에서는 벼가을을 하였고 밭에서는 콩을 비롯한 발곡식을 거두어들이였으며 밀보리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이 시기 중부지대에서는 백로에 시작한 조가을을 끝내고 벼가을을 시작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왔으며 산간지대들에서는 원그루로 많이 심던 늦감자를 수확하였다.

오는 9월 21일은 우리 선조들이 크게 쇠여오는 민속명절의 하나인 추석이다.

추석은 가을저녁이라는 뜻으로서 오곡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인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기던데로부터 생겨났다.

추석명절의 민족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 설기떡, 찰떡, 밤단자와 노치 등이 있으며 이날 씨름과 그네뛰기, 바줄당기기, 소놀이, 거부기놀이, 길쌈놀이와 같은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진행하였다.

올해의 백로는 9월 7일이며 추분은 9월 23일이다.

본사기자

병치료에 좋은 배

배에는 당분 특히 과당과 포도당이 많으며 유기산으로서의 사과산, 포도주산, 레몬산이 들어있다.

그밖에 광물질들과 여러가지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다.

급성기관지염때 껍질을 벗긴 배를 잘게 썰어 사탕에 재웠다가 먹거나 배꼭지부분을 도려내고 씨를 뽑아낸 다음 거기에 꿀을 채워놓고 쪄서 한번에 한알씩 하루 세번씩 끼니뒤에 먹는다.

만성위염때에는 배 한알을 껍질벗기고 속을 파낸 다음 잘게 썬다.

마늘은 3톨정도 껍질을 벗겨 짓찧는다. 무우는 절반짜개여 숟가락으로 긁는다.

이렇게 준비한것을 섞어 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하루정도 두었다가 한번에 세숟가락씩 하루 세번 끼니전에 먹는다.

본사기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